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41호 【루게 제2454호】 주제103(2014)년 5월 21일 (수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룽군 중장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의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에게 안겨 주시는 사랑의 선물인 2개 호동의 46층짜리 현대적인 교육자살림집이 품겨수려한 대동강변에 사회주의문명국의 건축물답게 일떠서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8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을 위한 살림집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설계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였으며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에 참가하였던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를 투입해 주시고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구상과 의도를 언제나 영웅적위훈으로 받아들여온 군인 건설자들은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내달려 불과 몇개월사이에 초고층살림집골조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현지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화선선전, 화선선동으로 들쭉이는 건설장을 보시며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고, 21세기의 공격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한 군부대의 전투장이 확실히 다르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살림집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은 살림집들을 바라보시며

외벽을 곡면으로 처리하니 마치 대동강에 떠있는 돛배처럼 보인다고, 건축의 조형예술성을 끊임없이 혁신해나갈데 대한 당의 의도가 반영된 특색있는 멋쟁이건축물, 건설부문일군대강습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있는 우리의 건축술을 과시하는 걸작품이라고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살림집의 밑단부분에 상점을 비롯한 편의봉사 시설을 꾸려주시니 보기에도 좋고 안정감이 나며 복도와 전실사이의 출입구처리도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당에서 비준해준 설계의 요구대로 시공을 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건설에서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 군인건설자들의 일본새라고 하시면서 모든 건설부문에서 이들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골조공사와 내외부 미장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가구제작도 동시에 내밀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늘 강조하지만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자면 그 담당자들인 과학자, 연구사들의 생활문제를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의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한생을 바쳐가는 교육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살림집들을 많이 건설하여 교원, 연구사들에게 안겨주자는것이 당의 의도라고 말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시었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자들이 생활에서 아무런 걱정이 없이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진행하도록 살림집을 더 건설해주자고 말씀하시었다.

지금 건설하고있는 살림집을 축으로 대동강변에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500세대 더 짓고 봉사시설도 꾸려주게 되면 웅근 하나의 거리가 형성될것이

라고 하시면서 새로 일떠서게 될 거리의 이름을 <미래과학자거리>로 명명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건설하는 거리의 내외부형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멋들어지게 함으로써 건설에서 다시 한번 혁명을 일으키는 계기로 되게 하자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의 강력한 건설력량을 파견하여 다음해 태양절까지 건설을 끝내자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500세대를 더 지어주는 문제도 빠른 기간안에 검토하고 결심하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는 당창건 기념일까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을 완공하여 교원, 연구자들에게 안겨주자고 하시면서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가 당의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에 조전을 보내었다

비엔티안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앞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최근 라오스의 시영황주에서 있는 비행기추락사고로 귀 당의 여러 지도간부들을 포함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불행한 소식에 접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에 가장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귀 당중앙위원회를 통하여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위문을 보냅니다.

이번에 일어난 뜻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귀 당의 지도간부들은 라오스당과 혁명의 강화발전 그리고 조선과 라오스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는 많은 공헌을 하였으며 그들을 잃은것은 라오스당과 인민뿐 아니라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도 큰 손실로 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이 기회에 귀 당중앙위원회와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라오스당과 인민이 커다란 상실의 아픔을 하루빨리 가시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제103(2014)년 5월 19일

평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카메룬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야운데

카메룬공화국 대통령

별비아각하

나는 카메룬공화국창건 42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친선협조의 뉴대가 앞으로 더욱 공고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민족적단합을 도모하고 나라의 사회경제적부흥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노력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3(2014)년 5월 20일

평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세계식량계획 집행국장일행을 만났다

【평양 5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였다. 여기에는 방명록의무성 부장과 디에르크 슈테켈 주조선 세계식량계획 대표가 참가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명언해설

《혁명전통은 혁명의 만년초석이며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보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일동지의 이 명언에는 수령에 의하여 이룩된 혁명전통은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혁명위업을 계속완성하기 위한 귀중한 밑천이라는 뜻이 담겨져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에는 주체의 사상체계와 혁명정신, 고귀한 혁명업적과 경건,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이 집대성되어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되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 풍부화되었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밑에 건결히 옹호고수되고 계승발전되어온 주체의 혁명전통이다.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이 어떤 풍파도 뚫고 승승장구해나갈수 있게 하는 만년초석이다.

혁명전통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명도밑에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이룩되게 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가장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된것이다.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항일혁명투사들은 국가적 후방도,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아시아의 《명주》라고 자처하던 일본제국주의와 단호히 맞서 싸워 식민지정치를 끝장내

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였다.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탁월한 수령의 명도를 받은 혁명적인민,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을 당할 힘은 없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리를 새겨주고있다.

간고한 항일전의 나날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러갔다. 이 력사적기간에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언제나 우리 조국과 혁명을 보다 큰 승리로 떠밀어준 원동력이었다. 특히 우리가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종종침범 경험했던 1990년대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치열한 반미대결전에서 편편전승을 이룩하고 불멸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칠수 있었던것은 당의 혁명전통을 건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왔기때문이다.

혁명투쟁의 진행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과 혁명적선진,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사소한 편협함이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고귀한 경험들이 집대성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주체의 혁명전통은 우리 조국과 인민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 백전백승을 펼칠수 있게 하는 만년초석으로 빛을 뿌리었다.

혁명전통은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보이다.

혁명위업은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

고 구현하며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백두의 행군길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성에 대한 신념을 깊이 새겨주는 더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일찍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로서의 답사행군길을 몸소 개척하시어 새세대들이 항일의 혁명전통, 백두의 혁명정신에 대하여 잘 알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명도의 길에서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들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훌륭히 꾸리시고 그를 통한 교양을 강화하는 사업에 언제나 깊은 주의를 들리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명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한 참다운 혁명가들로 자라나게 되었으며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혁명의 년대기들을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올수 있었다.

오늘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명도밑에 존엄높은 백두산대국으로 온 세상에 위용을 떨치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순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이 보람찬 투쟁에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더욱더 커다란 견인력과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 1월 마두산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당이 혁명전통교양을 즐기차게 벌여왔기때문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력사적 류례없는 만년시편을 과감히 이겨내고 혁명의 한걸음에 뜻이 걸여올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혁명의 대가 바림수록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할철 의지를 지니시고 조선인민군 련합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조직하시어 건군에 혁명전통교양의 불바탕을 세차게 일으켜주시고 모란봉악단의 량강도순회공연을 통하여 백두산기슭을 혁명열, 투쟁열로 들끓게 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에 의하여 지금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은 더욱 높이 떨쳐지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역세게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순리를 반드시 이룩하여야할것이다.

리철

밤새워 보아주신 영화연출대본

주제 57(1968)년 7월 어느날이었다. 함경남도를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의 작업필름을 보아주시기 위하여 창작가들을 부르시었다.

창작가들을 반겨맞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업필름을 다 보자면 몇시간쯤 걸리는가고 물으시었다. 7시간정도 걸릴것 같다는 연출가의 대답을 들으신 장군님께서서는 그럼 오늘은 밤늦게까지 영화를 보아야 할것 같다고, 동무들이 작업필름을 가지고 멀리까지 왔는데 아무리 바빠도 보아주겠다고 하시었다.

이윽고 영사실에서는 영화화면이 흘렀다.

영화를 다 보아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잘 만들었다고, 특히 제1부와 제2부는 나무랄데 없이 잘되었다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그런데 일부 장면들에 불필요한 화면들을 넣다보

니 속도가 빠르고 특히 제3부에서는 생활이 빈약한감을 준다고 하시면서 영화를 좀더 손질하여야 할것 같다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연출대본을 가지고왔는가고 물으시었다. 연출가는 연출대본을 가져왔는데 창작과정에서 몹시 어렵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본이 어지러워도 일터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날 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방에는 새벽까지 불이 꺼질줄 몰랐다.

다음날 아침 창작가들을 다시 부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만족하신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이제는 우리가 위대한 수령님께 혁명전통주체의 대작을 만들어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가 전반적으로 잘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제에 영화에 새로운 장면들을 더 넣느라 하지 말고 처지는 장면들만 정리하자고 하시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해주시었다.

그이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수정작업을 다그치던 창작가들은 그날 밤 뜻밖에도 자기들의 일터에서 위대한 장군님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본수정작업의 진척정형을 알아보신 장군님께서서는 연출가에게 대본이 된것만큼 먼저 보자고 하시었다. 창작가들은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자기들이 쓴 대본은 제 완성되지 못한 대본이 글썽해서 쓴 초고여서 장군님께 드릴 형편이 못되

었던것이다.

창작가들은 대본을 정서하여 올리겠다고 말씀드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정서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대본을 마쳐 완성하라고, 나머지대본도 완성되는 차례로 넘겨주면 보아주겠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그날도 수정한 연출대본을 한장한장 다 보시고 손수 가필까지 하시면서 완성해주시느라 밤을 꼬박 밝히시었다.

창작가들이 나머지 연출대본 수정작업을 끝낸것은 다음날 석양이 깃들무렵이었다.

수정된 연출대본을 안고 방에 들어서신 장작가들을 반갑게 맞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고하였다고, 자신께서 나머지 부분까지 다 보고 의견을 주겠다고 하시었다.

그로부터 2시간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창작가들이 있는 곳을 또다시 찾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창작가들에게 수정대본을 주시면서 동무들이 보고 다른 의견이 없으면 평양에 올라가 영화를 빨리 완성하여야 하겠다고 이르시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동무들이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를 훌륭히 완성하여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리라고 믿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하나의 영화연출대본을 세번이나 보아주시고 가필완성해주시신 사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작업을 지도하시던 나날에 있는 수많은 사연들중에서 하나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본사기자 김승표

전 선 행 렬 차

람만적으로 (♩=140)

작사 김기성
작곡 설태성



1. 기적소리를 리며 열차는 나네 열차는 나 가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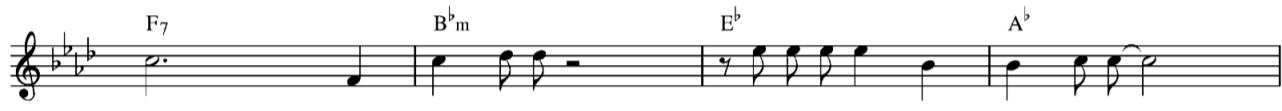
작별의정프 거운 역전엔어-머니 웃고름날 리 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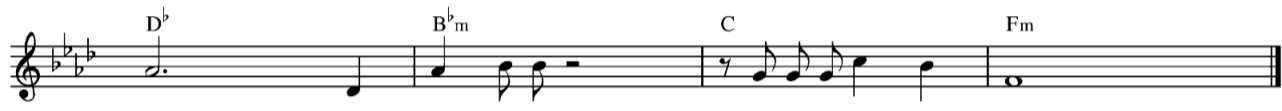
바 래 주 는 그-모습- 갈수록자 게 보 여도-



더 옥 크 게 새겨지네 교-향 의열 굴 로



라 라 라 라라 고향을안 고 달 리는-



라 라 라 라라 전선행렬 차 여

2. 기적소리 울리며 열차는 달려네 열차는 달려가네

차창밖엔 드넓은 기름진 전야와 새 집들 보이네

마주 오는 그 모양 순간에 지나가지만

이 가슴엔 못 떠나네 소중한 모든것

라 라라라라 조국을 안고 달리는

라 라라라라 전선행렬차여

3. 기적소리 울리며 열차는 달려네 열차는 달려가네

이 나라의 자식들 어머니조국 위해 용감히 나가네

람용색국기아래 태어난 젊은이들이

그 기발을 지키여 한복속 바치리

라 라라라라 조국을 지켜 달리는

라 라라라라 전선행렬차여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몽골인민당대표단

회 담 진 행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몽골인민당대표단의 회담이 20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강석주동지와 리득남 검열위원회

부위원장, 박근광부부장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이, 상대측에서 즈. 멩흐바트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몽골인민당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자기 당활동

정형을 통보하고 두 당사자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담은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과 몽골인민당 사이의

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

조선로동당과 몽골인민당 사이의 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20일 평양에서 조인되었다. 조인식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강석주동지와 리득남 검열위원회 부위원장, 박근광부부장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이, 상대측에서 즈. 멩흐바트 총비

를 단장으로 하는 몽골인민당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강석주동지와 즈. 멩흐바트 총비서가 합의서에 수표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몽골인민당 대표단을 위하여

연회 마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몽골인민당대표단을 위하여 20일 평양고려호텔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즈. 멩흐바트 총비

를 단장으로 하는 몽골인민당대표단 성원들, 마니바드라친 강비서, 강경명등이 많은 관심속에서 이날이 좋게 발전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몽골인민당이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있는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즈. 멩흐바트 총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강석주동지와 리득남 검열위원회 부위원장, 박근광부부장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강석주동지가 연설 하였다. 그는 우리 당과 인민에 대한 친선의 정을 안고 우리 나라를

방문한 몽골인민당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몽골의 선대수령들과 함께 마련하여주신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적인 친선협조관계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훌륭히 계승되었으며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깊은 관심속에서 이날이 좋게 발전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몽골인민당이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있는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즈. 멩흐바트 총비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련인학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 동포조국방문단이 20일 비행기

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모란봉악단 축하공연 계속 진행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이 4.25문화회관에서 20일에도 계속되었다.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진군길에서 문화예술혁명의 장엄한 피성을 울린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평양시안의 문화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 예술교육부분 교원, 연구자들이 관람하였다.

애국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여성독창과 방창 《사랑에 대한 생각》, 경음악 《백두의 말발굽소리》, 여성독창과 방창 《바다만종가》, 《장군님 생각》, 여성중창 《전선행렬차》 등의 종목들이 울렸다. 출연자들은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적문화예술전통을 창조하고 주제문화예술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문학예술인들을 위대한 사랑의 한복에 안아 우리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연자로 내세워주시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절대배경에 모셔질 때마다 관람자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며 우렁찬 박수를 터쳐 올리였다. 위인홍도의 열기로 장대를 격동시킨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위대한 태양의 흠,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사회주의타락에서 반복의 희망을 꽃피우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눈부신 문명을 창조해가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부듯이 새겨안았다. 《비행사의 노래》, 《은빛날개》, 《하늘의 방패 우리가 되리》

등 선군조선의 영광을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우리의 영웅한 비행사들이 사랑하고 즐겨부르는 노래들로 이어진 경음악과 노래연곡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은 비행사들을 비롯한 군인들과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생활과 가까운 종무들을 펼쳐 절찬을 받는 악단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창작창조기풍을 잘 보여 주었다. 《세상에 부럼없으리》로 시작되어 《빛나는 조국》으로 결정을 이루는 경음악연곡 《세계명곡음악》은 이 땅에 발붙이고 세계를 굽어보며 세대에 예술의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는 주제조선 문학예술인들의 강한 민족적자존심과 무한한 창조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출연자들은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맺어진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노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이 세상 끝까지



각지에 일떠서는 과학기술지식보급거점-미래원

시, 군들에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정보기술인력들을 갖춘 현대적인 미래원을 훌륭히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새로 건설 및 개건되는 각지 미래원들은 전자열람실, 컴퓨터학습실, 과학기술보급실, 원격강의실 등이 꾸려지고있다. 우리 당의 진전과학기술인재화

일꾼들은 조직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자체와 실비들을 제때에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상원군안의 돌격대원들과 기관, 기업소의 일꾼들, 근로자들은 짧은 시간에 수천㎡의 도로를 처리하고 기초공사를 와닥닥 해제였다.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필요한 자재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상원군기술에 2층으로 된 미래원을 아담하게 건설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제 102(2013)년 6월 창성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도들에 현대적인 도서관을 본보기로 일떠세우고 잘 운영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시, 군들에 새로 꾸려지는 도서관들을 미래원으로 부르도록 해주셨다.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황해북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자강도, 강원도안의 시, 군들에서는 미래원건설 및 개건사업을 통이 크게 밀고나가고있다.

미래원들에서는 중앙과 도, 시, 군사이에서 자료봉사체계를 확립하고 현대과학기술자료들과 여러 분야의 최신성과자료들을 독자들이 임의의 시간에 찾아볼 수 있게 하고있다. 대동단군, 안악군, 회천군미래원들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여러 단위들과의 연계밑에 봉사활동과 운영을 잘해나감으로써 일꾼들과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 고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현대과학기술을 열심히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인민을 과학기술인재로 키울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과학기술지식보급지들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단천시 장래협동농장 농산 제3작업반 2분조 분조장 허순화동무를 분조원들모두가 우리 분조장이라고 정답아 부르고있다. 분조농사는 전적으로 자기에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허순화동무는 알뜰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신작적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고있다. 그는 분조원들에 대한 기술 학습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그들이 과학기술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는데 큰 힘을 냈고있다. 뜨거운 인정미를 지닌 그는 분조원들을 중심으로 위해주고



그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고있다. 값고있는 분조원을 위해 먼길을 달려가 약재도 구해주었고 가장방문도 정상적으로 하여 그가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하도록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고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분조는 농장적으로 농사에서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다. 오늘날도 허순화동무는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에 참가하여 다그친다. 그의 맹세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면한 영농전투에 분조원들을 힘있게 불려일으키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 리충일선수 끈스판 쥘로트브브명칭 국제권투경기대회에서 금메달 쟁취

우리 나라의 리충일선수가 끈스판 쥘로트브브명칭 국제권투경기대회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리충일의 하바롭스크에서 진행된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우바,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한 16개 나라와 지역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필승의 신심에 넘쳐 남자 52kg급경기에서 출전한 리충일선수는 높은 기술과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여 로씨야인들을 완전히 쓰러뜨리고 승리하고 결승경기에서 진출하였다.

독자의 편지

저의 집으로는 명절날과 일요일은 물론 여느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영예군인이기때문입니다. 영예군인들의 생활을 따져볼수록 그 영광의 꽃을 활짝 피워가도록 밀려들기 되어주는 미덕의 향기가 매일, 매시각 저의 집에 차넘치고있습니다. 서성구역공업품종합상점 강복순동무는 10여년전부터 저의 가정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수록 각별히 마음을 쓰며 다스리며 보살펴주었습니다. 식량은 넉넉한가, 부식물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어디 앉는 데는 없는가 늘 걱정하며 온갖 성의를 다하는 그를 대할 때마다 친혈육의 정을 느끼곤 합니다. 이곳 상점의 박복순동무도 문양고운 재자를 비롯하여 여러

을 돌아보았다. 또한 그들은 풍치수려한 대동강변에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며 우리 인민들이 명명명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문화휴식터로 일떠선 문수물놀이장도 찾았다. 이밖에 손님들은 평안남도독어이원 등을 참관하였다. 집행국장일행은 지난 13일 평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인명피

우리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남조선적십자사 총재가 위로전문을 보내어왔다. 위문은 지난 13일 평양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인명피

가져 생활용품들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서성구역종합상점 상용국수집의 김혜경, 박순복동무들은 명절은 물론 저의 생일날이면 생일상도 차려주고 건강에 좋은 보양도 가져다주면서 아낌없는 지성을 기울이고있습니다. 영예군인들이 병사시절처럼 혁명적방안과 기백에 넘쳐 생활하도록 돌봐주는것은 당의 뜻이라고 하면서 저의 가정 생활을 위해 온갖 지성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곤 하였습니

다. 서성구역공업품종합상점 강복순동무는 10여년전부터 저의 가정생활에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수록 각별히 마음을 쓰며 다스리며 보살펴주었습니다. 식량은 넉넉한가, 부식물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어디 앉는 데는 없는가 늘 걱정하며 온갖 성의를 다하는 그를 대할 때마다 친혈육의 정을 느끼곤 합니다. 이곳 상점의 박복순동무도 문양고운 재자를 비롯하여 여러

